

20세기초 일본인의 <춘향전> 번역 작업에 대한 일고*

노경희**

1. 들어가며
2. 19세기 후반~20세기초 일본인의 <춘향전> 근대적 출판
3. 일본인 번역본 <춘향전>의 간행 의도와 변형 방식
4. 일본인 <춘향전> 번역 작업의 문학사적 의미
5. 마무리

<국문초록>

본고는 19세기말 이후 20세기초 일본인들의 <춘향전> 번역 작업을 고찰함으로써 근대화와 식민지화가 동시에 진행되던 조선문단 상황에서 조선 고소설이 근대적 출판물로 재탄생하는 과정의 일면을 추적하였다.

20세기초 일본인의 춘향전 번역 중 본고에서 주목한 것은 1882년 나카라이 도수이(半井桃水)의 『계림정화 춘향전(鷄林情話春香傳)』, 1910년 다카하시 도루(高橋亨)의 『춘향전』, 1921년 호소이 하지메(細井肇)의 『광한루기』이다. 이 번역본들은 각기 일본의 경제적 침탈, 한일병합, 3·1 운동이라는 정치적인 사건의 영향 속에서 간행된 판본들이다. 이들 번역본은 조선의 풍토와 조선인의 심상을 이해하기 위한 의도로 편찬되었고, 이에 번역의 과정

* 본고는 2016년 8월 23일 서울대 규장각한국학연구원에서 열린 국문학회 2016년 하계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내용을 수정·보완한 것이다. 당시의 기획주제는 『한국의 고전을 다시 읽는다 (1)』이며, 그 첫 번째 작업으로 각 분야 연구자들이 <춘향전>에 대해 다양한 시선에서 검토하며 새로운 연구 방향을 모색하였다. 필자에게 많은 자극과 새로운 연구 방향을 제시한, 함께 발표를 맡은 이지영·조성진·노지승·오수창·장유정 선생님과 발제와 토론을 맡은 정공식·심재우·김수영·류준경 선생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린다.

** 울산대 국어국문학부 부교수

에서 일정한 변형이 나타났다. 그 변형의 방식 중 본고에서는 성적(性的)인 묘사가 축소되고 ‘정절’과 ‘효’라는 전통적 이데올로기가 강조되고 있는 점에 주목하였다. 이러한 모습은 <춘향전>의 또 다른 모습인 사회 비판적 성격, 흥미 추구의 통속적 성격 등을 축소시킨 것으로, 일본인들의 <춘향전> 수용이 조선인들의 <춘향전> 수용과 상당히 다른 지점에 있음을 보여준다. 1920년대 이후로 <춘향전>은 조선인 학자들에 의해 ‘고전’으로 재인식되는데 그 과정에서 20세기초 일본인들의 번역본은 일정한 영향을 끼친다. 근대라는 시공간에서 <춘향전>이 일본인과 조선인에 의해 어떻게 변모하고 이해되는지를 비교하는 작업은 차후의 연구과제로 남긴다.

핵심어: 춘향전, 일본어 번역, 나카라이 도수이, 다카하시 도루, 호소이 하지메.

1. 들어가며

<춘향전>은 명실상부한 한국의 대표적인 고전문학 작품이다. 18세기 전라도 남원의 판소리라는 한 지역의 통속 예술로 태어난 이후 21세기 오늘에 이르기까지 한국인들에게 가장 사랑을 받은 문학작품을 꼽을 때 <춘향전>을 내세워도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런데 <춘향전>이 이렇게 한국을 대표하는 고전 작품으로 자리매김한 과정에는 20세기초 <춘향전>의 근대적 출판물로의 변형 작업이 큰 역할을 했다.

<춘향전>은 판소리에서 기원을 찾지만 전통시대에 소설과 한시, 한문 작품으로도 창작되었다. 20세기 들어와서는 이해조의 『옥중화』를 필두로 최남선의 『고본춘향전』, 이광수의 『일설춘향전』 등 여러 차례 ‘신소설’이라는 근대의 문학 장르로 재탄생하였다. 또한 밖으로도 수차례의 일본어 번역본과 영어 및 프랑스어·독일어·네덜란드어·러시아어 등 다양한 언어 번역본이 등장하였다. 뿐만 아니라 창극과 연극·영화·오페라·무용 등 다양한 형태의 예술 작품으로 재탄생되었다. 즉, 20세기초라는 근대적 공간을 거치면서 <춘향전>은 제한된 지역의 통속문예물이 아닌 한국을 대

표하는 고전문예 작품으로 자리매김한 것이다.

도대체 20세기 전후한 근대적 공간에서 과연 <춘향전>에 어떤 일이 벌어진 것일까. 본고에서는 이 물음에 대한 답을 찾는 일환으로 19세기말 이후 나타난 일본인들의 <춘향전> 번역 작업에 주목하였다. 일본인들의 <춘향전> 번역본은 신문 연재와 신식활자본 출판이라는 근대의 출판 시스템 하에서 초창기에 출판된 판본이다. 근대화가 식민지화와 함께 진행된 조선의 상황 속에서 <춘향전>의 근대적 출판물의 초기 형태가 일본어 번역본이라는 점은, 결국 <춘향전>의 근대적 출판물로의 변신을 논하는데 일본인들의 번역 작업을 함께 고려해야 함을 의미한다. 결국 본고의 논의는 20세기 이후 <춘향전>이 전통 문예에서 근대의 고전으로 재탄생하는 그 시 작점을 찾는 작업이 되리라 기대한다.

2. 19세기 후반~20세기초 일본인의 <춘향전> 근대적 출판

2.1. 일본인의 <춘향전> 번역물 간행

일본인의 <춘향전> 번역은 1882년 나카라이 도스이(半井桃水, 1861~1926)의 오사카 아사히 신문(大阪朝日新聞)에 연재된 『계림정화 춘향전(鷄林情話春香傳)』이 가장 이른 시기의 작업이다. 이후 일본인들은 소설·희곡·오페라·영화·만화 등 다양한 장르로 <춘향전>을 개작한다. 이때 1924년까지는 소설로 9번 번역되는 등 단 1편을 제외하고는 모두 소설 번역 작업인데 반해, 1938~41년의 기간에는 희곡과 오페라의 번안 작업이 대부분을 차지하여 16번이나 번안된다. 즉 일본에서의 <춘향전> 유행은 시기에 따라 장르를 구별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점이 특징이다.¹⁾ 이 중 본고에서는 1882년 이후 특히 1900년대 초반에서 1924년까지 활발히 이루어진 <춘향전>의 소설 번역 작업에 집중하여 논의를 이끌어가기로 한다.²⁾

1) 이응수·윤석임·박태규, 『일본에서의 ‘춘향전’ 수용 연구』, 『일본언어문화』 19, 2011, 552~557면.

2) 이 시기 일본어 번역본 <춘향전>에 대한 주요 연구로는 이응수·윤석임·박태규, 위의 논문; 이응수·윤석임·박태규, 『일본에서의 <춘향전> 수용의 전개양상-제1기(1882~1924)를 중심으로』, 『일본언어문화』 22, 2012; 西岡健治, 『일본에 있어서의 한국문학의 전래양상-江

현전하는 ‘판본’만 놓고 보면, 1882년부터 1924년까지 출판된 <춘향전>의 일어 번역본은 모두 11종이다. 그러나 이중 일부는 앞서 나온 판본을 그대로 혹은 약간 변형하여 재판한 것들이며 일본인이 아닌 조선인 간행본³⁾도 포함되어 있다. 여기서 ‘일본인 번역자(편찬자)’ 기준으로 이 시기 간행된 일본어 판본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9세기 후반~20세기초 일본인 번역·간행 <춘향전>>⁴⁾

연도	제목	편자/역자	수록 지면/저서	신문/ 출판사
① 1882	鷄林情話 春香傳	半井桃水	『大阪朝日新聞』	大阪朝日新聞
1903	韓國の小説-春香伝	上村湖南	『韓半島』 1권2호	
1906	春香傳の概要	高橋仏焉 ⁵⁾	『太陽』	
■ 1910.8.29. : 한일 강제 병합				
② 1910. (9.5)	春香傳 * 1914: 증보판 『朝鮮の俚諺集附物語』 * 1921: 『春香傳』上下, 『朝鮮』 재수록	高橋亨 著	『朝鮮の物語集附俚諺』	京城: 日韓書房
	1911			
■ 1919.3.1. : 3·1 만세운동				
1919	妓生春香物語	田中貢太郎	『月の夜話』	東京: 天佑社
③ 1921	廣寒樓記 * 1924: 『朝鮮文學傑作集』(東京: 奉公會) 재수록	細井肇 編 鳥山某 譯 趙鏡夏 譯述	『通俗朝鮮文庫』 제4집	京城: 自由討究社
	1924			

戶시대때부터 1945년까지, 『국학연구론총』 1, 2008; 정병호, 『1910년 전후 한반도 ‘일본어 문학’과 조선 문예물의 번역, 『일본근대학연구』 34, 2011; 김효순, 『한반도 간행 일본어잡지에 나타난 조선문예물 번역에 관한 연구, 『일본연구』 33, 2012 등이 있다.

- 3) 『萬古烈女 日鮮文 春香傳』(唯一書館·漢城書館, 1917.7.30)은 이해조의 『옥중화』를 저본으로 삼아 조선인 南宮楔이 일어로 번역한 판본이다.
- 4) 이 외로 1922년 간행된 희곡 『春香傳三幕四場』(麻生磯次)도 있으나 본고에서는 ‘소설’에 집중하여 논의하기로 한다.
- 5) 高橋仏焉과 ②의 高橋亨을 동일인으로 보는 연구도 있음(西岡健治, 앞의 논문, 9~10면).
- 6) 이 작품의 경우 이용수·윤석임·박태규의 『일본에서의 ‘춘향전’ 수용의 전개양상』(656면)에서는 細井肇의 『통속조선문고』의 『광한루기』와 함께 呂圭亨 원작의 같은 작품이라고 하였지만, 실제로 『통속조선문고』의 『광한루기』는 여규형의 작품이 아니다. 이에 따로 구분하여 정리하기로 한다. 여규형본과 관련하여서는 송미경, 『여규형본 ‘춘향전’ 각본의 형성과 독서물로서의 수용 전환』(『판소리연구』 28, 2009) 참조.

이 중에서 줄거리 소개나 초역(抄譯)을 제외하고 <춘향전>의 완역본 중에서도 시기별로 중요한 의미를 지니며 후대에 일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다음의 세 작품을 들 수 있다. 첫 번째 작품은 ① 나카라이 도스이(半井桃水)의 『계림정화 춘향전(鷄林情話春香傳)』이다. 이 작품이 나온 1882년(고종 19)은 조선이 한참 외세의 개방 압력을 받던 시기로, 일본과는 이미 1876년에 불평등한 통상조약인 강화도조약(朝日修好條規)을 체결한 바 있다. 이 작품이 번역된 다음해인 1883년 7월에는 조일수호조규속약(朝日修好條規續約)까지 체결되어 일본은 조선의 행상권(行商權)과 경성 진출권을 얻어 가기도 하였다. 즉, 일본이 조선을 경제적으로 점령하는 작업이 한참 진행되던 시기에 등장한 번역본이다.

번역자인 나카라이 도스이는 대마도번의 의사(蕃醫) 집안에서 태어났다. 부친은 조선 초량왜관의 의사로 근무하였고, 도스이 또한 부친을 돕기 위해 10세인 1872년에 조선으로 건너와 14세까지 왜관에서 살았다. 그는 어릴 때부터 의술 공부 보다 『삼국지』·『사기열전』·『태합기(太閤記)』 등을 열독할 정도로 문학에 관심이 많았다. 결국 그는 의사가 되는 것을 포기하고 신문기자가 되었으며, 아사히신문(朝日新聞)의 부산 통신원이 되어 1882년 6월 25일부터 아사히신문에 『계림정화 춘향전』을 연재하기 시작하였다.⁷⁾ 그는 어린 시절 조선 체류 경험을 통해 양국의 사정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다. 이에 <춘향전>을 번역하는데 있어서도 일본인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삽화를 첨부하고, 춘향과 이도령이 만나는 첫 장면을 그네 뛰는 장면이 아닌 일본인에게 익숙한 ‘곡수(曲水)의 연(宴)’으로 대체하는 등 여러가지 변형을 시도하였다.

다음으로 주목할 두 번째 번역본은 ② 다카하시 도루(高橋亨)의 번역본이다. 이 책은 1910년 9월 5일 간행된 『조선의 이야기집(朝鮮の物語集)』에 수록된 것으로, 일본과 한일합병조약(1910.8.29)이 이루어진 직후에 출판되었다. 다카하시 도루는 1902년에 동경제대 한문과를 졸업하고, 1903년 대한제국 정부의 초빙으로 조선에 건너와 한성중학교(현 경기고등학교)의 교사가 되었다. 이후 여러 학교의 선생을 역임하며 조선의 고서·금석문·종

7) 나카라이 도스이에 대해서는 櫻井信榮, 『半井桃水「鷄林情話春香傳」について』, 『일본학』 31, 2010, 213~7면.

교·문학·철학·역사 등을 연구한 초창기 대표적인 일본인 조선연구자이다. 그는 1926년에 경성제국대학의 법문학부가 설립되자 조선어학·문학부 교수에 임명되어 1940년 사직할 때까지 경성제대에서 조선의 문학과 사상사를 강의하였다. 경성제대 교수 생활을 통해 조선인 제자들을 양성하며 조선인의 초기 국학연구에 일정한 영향력을 행사하기도 하였다.⁸⁾

1911년 간행된 호소이 하지메(細井肇, 1886~1934)의 『조선문화사론』 『반도의 패사소설(軟文學)』 항목에는 <춘향전>을 비롯한 여러 조선 고소설의 줄거리가 소개되었는데, 이때 참고한 번역본이 바로 ② 다카하시의 『조선물어집』 수록 <춘향전>이기도 하다.⁹⁾ 호소이 하지메는 또한 본고에서 주목하는 세 번째 번역본의 편찬자이다. 그는 1908년 조선에 건너 와 신문사에서 근무하다가 1911년 기쿠치 겐조(菊池謙讓) 등과 함께 ‘조선연구회’를 창설하여 본격적으로 조선의 고서를 일본어로 번역·간행하는 작업에 뛰어 들었다. 조선에 들어오기 전 일본에서는 사회주의자로 노동문제와 관련된 활동을 펼치기도 했다. 그는 1919년 조선에서 3·1운동이 일어나자 ‘조선 문제 해결을 위해 이 한 몸 바치기로 굳게 결심했다’며, 1920년 경성에 자유토구사를 설립하여 조선과 관계된 다양한 서적을 편찬하였다. 자유토구사에서 편찬한 책들 중에는 조선의 문학 작품을 선발하여 번역한 『통속조선문고』·『선만총서』·『조선문학결작집』 등이 있으며, <춘향전>의 번역 또한 이 문고의 간행 작업 가운데 이루어졌다.¹⁰⁾

이 작품이 바로 세 번째 주목할 번역본으로 ③ 1921년에 간행된 『통속조선문고』 제4집에 실린 『광한루기(廣寒樓記)』이다. 조선인 조경하(趙鏡夏)의 번역을 일본인 도리아마(鳥山)가 윤색하고, 이를 다시 호소이 하지메가 다듬었다.¹¹⁾ 이러한 점에서 호소이 하지메를 직접적인 번역자라 할 수는

8) 다카하시 도루에 대해서는 권혁래, 『근대 초기 설화·고전소설집 ‘조선물어집’의 성격과 문학사적 의의』, 『한국언어문학』 64, 2008, 220~1면.

9) 호소이 하지메, <廣寒樓記의 卷末에>(『통속조선문고』, 1921) “나 또한 예전에 줄거리만 뽑아서 출처 『조선문화사론』에 실었는데, 당시 다카하시 토루(高橋亨)씨가 초역(抄譯)한 <춘향전>을 매우 재미있게 읽은 기억이 있다.”

10) 호소이 하지메에 대해서는 서신혜, 『일제시대 일본인의 고서간행과 호소이 하지메의 활동』, 『은지논총』 16, 2007, 403~7면 참조.

11) 호소이 하지메, <廣寒樓記의 卷末에>(『통속조선문고』, 1921) “『심청전』과 『제비다리(흥부전)』도 차례로 역술(譯述)할 계획이다. 『광한루기(춘향전)』은 처음에 조경하(趙鏡夏)씨가 구어체로 역술한 것을 여기에 친구 도리아마(鳥山)씨가 더 갖고 닦아 구어체로 윤색하였다.”

없지만 이 문고의 기획과 작품 선정 등이 호소이 하지메 주도로 이루어졌고 번역의 최종 검열 또한 호소이가 관여했다는 점에서 그의 영향력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책은 1919년 일어난 ‘삼일운동’을 계기로 하여 간행되었다. ‘삼일운동’이 일본 정부에 던진 충격은 대단하였으니, 이 사건 이후 일본은 이전의 강압적인 식민 통치에서 벗어나 문화적 접근의 통치로 전환하였다고 한다. 그 과정에서 일본인들의 조선 문화 이해에 대한 욕구 또한 높아 갔고 조선의 고전문학 작품 번역이 이루어졌는데, 대표적인 작업이 바로 호소이 하지메의 『통속조선문고』 편찬이다. 이후 호소이는 이 문고에 수록된 고전 소설 작품들 중 대표작을 뽑아 『조선문학걸작집』(1924)이라 하며 이들 작품들을 ‘걸작’이라는 이름으로 묶어 간행하였다. 여기서 다카하시의 ‘조선의 이야기(朝鮮物語)’로 출발한 조선의 소설들이 이때에 이르러 ‘걸작’이라는 칭호를 받으며 일본인들에게 조선의 대표 소설로 인식된 모습을 살필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20세기초 조선 거주 일본인들의 주도로 이루어진 한국 고서 간행사업의 개략을 살펴보면, 조선고서간행회·조선연구회·자유토구사의 ‘조선고전총서’ 간행을 꼽을 수 있다.¹²⁾ 먼저 조선고서간행회는 총 28종 82책의 고전을 『조선군서대계(朝鮮群書大系)』라는 총서로 간행하였다. 이 책들은 원전의 모습을 최대한 그대로 반영하여 한문 원문 그대로 수록하였다. 다음으로 조선연구회는 『고서진서간행총서(古書珍書刊行叢書)』라는 총서로 1911년부터 1918년까지 세 차례에 걸쳐 총 56종의 한국 고전을 간행하였는데, 이 총서의 경우 한문 원문, 일본어 훈점본·훈독본, 또는 한글 번역본으로 간행되었다. 마지막으로 자유토구사는 『통속조선문고』라는 총서로 1921~2년 사이에 12책을, 『선만총서(鮮滿叢書)』라는 총서로 1922~3년

위의 언급 중 『광한루기』의 일본인 번역자로 나온 ‘鳥山’씨의 경우 미상인데, 『광한루기』의 광고면에서는 그 번역자가 자유토구사 간행 『사씨남정기』, 『구운몽』 등을 조선어로 번역한 호소이의 친구 시마나가 유조(島中雄三)로 언급되기도 하였다. ‘鳥山’이 ‘島中’의 오기인지 아니면 제3의 인물인지는 현재로서는 확인되지 않지만, 일부 선행연구에서는 島中雄三를 『광한루기』의 번역자로 보기도 한다. 본고에서는 일단 ‘鳥山’를 미상으로 두고 논의를 진행하기로 한다.

12) 최혜주, 『일제강점기 고전의 형성에 대한 일고찰』, 『한국문화』 64, 서울대 규장각한국학연구원, 2013.

사이에 11책의 조선 고서를 간행하였다. 이 총서들은 한문 원문은 생략되고 부녀자나 아이들도 읽기 쉬운 평이한 일본어 번역문으로 간행되었다. 이렇게 각 총서들은 총서의 간행 목적과 독자층의 성격에 따라 각기 다른 언어 형태를 보이고 있어, 일본인들의 조선고서 번역 작업의 대상과 방식이 점차 변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상의 고서 간행사업은 일견 민간에서 이루어진 간행으로 보이지만 실상을 살펴보면 총독부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이루어진 작업으로,¹³⁾ 결국 이 작업들은 큰 틀에서 조선의 식민지 정책의 한 방편이라는 테두리 안에 묶인다.

다음은 <춘향전>을 비롯한 조선의 고소설이 포함된 일본어 저술과 총서 간행물의 목차를 정리한 것이다.

■ 다카하시 도루(高橋亨) 著, 『朝鮮の物語集(附俚諺)』(京城: 日韓書房, 1910)

(1914년(대정 3) 『朝鮮俚諺集附物語』 증보판 간행)

* 목차: 癩瘡 / 城隍堂 / 貧郡守得錢 / 嘘較べ / 風水先生 / 己時下棺午時發福 / 得對句半死 / 解語龜 / 鬼失金銀棒 / 賈名人 / 興夫伝 / 淫僧食生豆四升 / 片身奴 / 無法者 / 明者欺盲者 / 盲者逐妖魔 / 妓生烈女 / 癩疥病童知雨 / 双童十度 / 韓様松山鏡 / 仙女の羽衣 / 富貴有命, 榮達有運 / 人と虎との争ひ / 神虎 / 長花紅蓮伝 / 再生縁 / 春香伝 / 毒婦 / 朝鮮俚諺

■ 호소이 하지메(細井肇) 著, 『朝鮮文化史論』(京城: 朝鮮硏究會, 日韓書房, 1911)

* 第八篇 『半島の稗史小説(軟文學)』: 秋風感別曲 / 南薰太平歌 / 沈清傳 / 九雲夢 / 趙雄傳 / 洪吉童傳 / 春香傳 / 薔花紅蓮傳 / 再生縁

■ 호소이 하지메 編, 『通俗朝鮮文庫』(京城: 自由討究社, 1921)

1집: 牧民心書 / 2집: 莊陵誌. 謝氏南征記 / 3집: 朋黨士禍の檢討 · 九雲夢 / 4

13) 『통속조선문고의 간행』, 『通俗朝鮮文庫』 제4집, 京城: 自由討究社, 1921. “본 사업은 총독부의 동의를 얻은 것이다. 세상에서 유달리 저렴한 것을 ‘공짜나 다름없다.’라고 한다. 본사 간행의 『통속조선문고』는 그야말로 공짜나 다름없는 실비로 배포하는 것이다. 이는 본사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보통의 출판사와 달리 ‘日鮮融和의大精神’을 한 순간이라도 실현시키고 싶다는 사내 동인들의 마음으로 모였기 때문이다. 數島七袋에도 부족한 월1원으로 구독할 수 있는 책자가 얼마나 여러분께 참고가 되고, 또한 제국의 국서를 수행하는데 얼마나 큰 이익이 있을지를 한번 생각해보길 바란다.”

집: 朝鮮歲時記・廣寒樓記 / 5집: 懲瑟錄・南薰太平歌 / 6집: 丙子日記 / 7집: 洪吉童傳 / 8집: 八域誌・秋風感別曲 / 9집: 瀋陽日記・沈清傳 / 10집: 雅言覺非・薔花紅蓮傳 / 11집: 大亞遊記 / 12집: 李朝の文臣・各種の朝鮮評論

■ 호소이 하지메 編, 『鮮滿叢書』(京城: 自由討究社, 1922~3)

1권: 海游錄・燕の脚・各種の朝鮮評論・朝鮮の趣味 / 2권: 海游錄(下)・鳳凰琴(上)・大東遊記・朝鮮趣味 / 3권: 侍天敎の敎旨・東經正義・鳳凰琴(下) / 4권: 悲しき國(山地白雨遺稿) / 5권: 東經正義(下)・朝鮮問題講演集 / 6권: 三國遺事 / 7권: 鄭鑑錄 / 8권: 晝永編(上: 卷1~2)・淑香傳 / 9권: 朝鮮の敎育 / 10권: 罷睡錄 / 11권: 晝永編(下)・五百年奇譚・雲英傳

(* 4권과 10권은 警務當局에 의해 발매금지되었음.)

■ 호소이 하지메 編, 『朝鮮文學傑作集』(東京: 奉公會, 1924)

(『통속조선문고』와 『선만총서』 소재 작품 선집)

* 목차: 春香傳 / 沈清傳 / 燕の脚 / 謝氏南征記 / 秋風感別曲 / 薔花紅蓮傳 / 九雲夢 / 淑香傳 / 雲英傳

2.2. 일본어 번역본과 조선본 <춘향전>의 관계

그렇다면 20세기초 <춘향전>이 근대적 출판물로 재탄생하는 과정에서 일본어 번역본의 위치는 어디쯤에 있을까.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20세기 이후 새롭게 등장한 조선인 간행 <춘향전>의 근대적 출판물과의 관계를 살필 필요가 있다.

먼저 20세기초 조선인이 간행한 <춘향전>의 근대적 출판물의 유통과 간행을 살피기로 한다. 전통적인 조선의 <춘향전> 유통에서는 문자가 아닌 ‘판소리’라는 구비 전승 형태가 주요한 방식이다. 그런데 20세기초에 들어와 <춘향전>은 ‘극장’이라는 근대적 공간에서의 공연이 주요한 유통 방식이 된다. 1902년 협률사를 시작으로 ‘연극장’이 출현한 이래, 1910년대는 창극 및 전통연희가 그 어느 때보다 활발히 공연된 시기였다. 전통연희의 흥행은 당시 활발하게 유통되던 활자본 고소설의 현실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특히 <춘향전>은 당시 극장에서 공연되던 작품 중 가장 인기 있는 작품이었다. 이 시기 <춘향전>의 신소설 형태인 『옥중화』와 『옥중화』 계통본의

활발한 출판은 1910년대 전통연희 공연의 흥행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이다.¹⁴⁾

‘문자’로의 유통은 필사본(주로 세책본), 목판본(경판/안성판/완판), 신식 활자본(연활자본)이라는 세 가지 형태로 이루어졌다.¹⁵⁾ 필사본과 목판본이 18세기 중반 이후로 등장한 전통 시대의 출판 방식이었다면, 연활자본은 20세기 이후 등장한 근대의 출판 방식이다. 현전하는 <춘향전> 자료를 보면 대략 필사본이 88종 110책, 목판본(방각본)은 25종 86책, 연활자본은 30종 90책이라 한다. 그런데 이중 필사본과 목판본의 경우 그 간행시기와 간행자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없는 자료가 많아 유통 시기를 추정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필사기와 간기가 있는’ 자료들을 토대로 그 유통 상황을 정리하면, 필사본은 1750년 전후하여 등장하였고, 목판본은 1880년 간기의 자료가 나타나며, 연활자본은 1910년대 이후 등장하였다. 각각의 형태가 가장 다수 등장한 시기를 보면 필사본과 목판본은 1900~1910년대, 연활자본은 1910~1920년대 주요한 형태들이다. 1910년대는 이들 세 종류 형태의 판본들이 모두 활발하게 간행되었으며, 이후로는 연활자본이 대세를 이루게 되었다. 즉 <춘향전>의 유통은 필사본이 가장 먼저 등장하였고 19세기 후반에 이르러 목판본이 등장하며 필사본과 함께 유통을 이끌었고, 이후 1910년대에 연활자본까지 가세하여 세 종류가 모두 유행하다가 1920년대 이후로는 연활자본이 주를 이루었던 것이다.

이 중 본고에서는 근대의 연활자본 간행에 주목하여 일본인 번역본 간행과 비교하고자 한다. 현전본을 대상으로 할 때 연활자본 <춘향전>은 84책이 출간되었고, 출간 횟수는 117회를 넘어서며, 32개의 출판사가 출판에 참여하였다.¹⁶⁾ 그런데 이들 작품 중 대부분은 1912년 간행된 이혜조 『옥중화』의 계열본이다. 『옥중화』와 동일하거나 이를 개작한 작품 또는 그 계통을

14) 이지영, 「『옥중화』를 통해 본 20세기초 ‘춘향 형상’의 변화」, 『한국고전어성문학연구』 32, 2016, 49~51면; 서유석, 「20세기 초반 활자본 춘향전의 변모 양상과 그 의미-『옥중화』 계통본을 중심으로」, 『관소리연구』 24, 2007, 152~6면.

15) 이옥성·강순애, 「『춘향전』 간행본의 계통 및 서지적 특징에 관한 연구」, 『서지학연구』 52, 2012.

16) 차충환·김진영, 「구활자본 춘향전의 출판과 서지」, 『관소리연구』 33, 2012, 352면.

보이는 작품이 73책으로 전체 84책 중 87%를 차지하며, 그 외로 <옥중화>와 차이를 보이는 작품은 7작품 11책에 불과하다고 한다. 이러한 사실에서 근대 조선인 간행 <춘향전>은 『옥중화』가 대세라고 할 수 있다.

1920년대까지 간행된 조선인 연활자본 중 주요한 판본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단, 연활자본의 다수를 이루는 『옥중화』 계열본은 따로 정리하지 않는다.

<20세기초 조선인 간행 연활자본 <춘향전>의 주요 판본>

출판연도	제목	저자	주요 저본	신문/출판사
1912.1.1.~3.16	옥중화	이해조	* 84장 완판본 * 신재효의 『남창춘향가』	매일신보
1913.12.20	고본 춘향전 (‘춘향전의 唯一定本’)	최창선 (최남선)	향목동 세책본(동양문고본)	신문관
1925.9.30~1926.1.3	일설 춘향전	이광수		동아일보

그렇다면 과연 이들 조선인과 일본인의 작업 간에 서로 영향관계가 있을까. 먼저 각 간행물들의 저본을 살피기로 한다. 일본인들의 작업을 보면 나카라이 도스이의 『계림정화 춘향전』(1882)과 다카하시본(1910)의 경우, 시기적으로 1912년 조선의 최초 연활자본 『옥중화』가 나오기 이전의 번역본이기에 전통시대 조선 간본인 필사본과 방각본이 주요 저본이었을 것이다. 특히 당시 외국인들이 쉽게 구할 수 있던 판본은 경판본이다. 실제로 『계림정화 춘향전』의 내용을 분석하면 기본적으로 경판 30장본을 바탕으로 하면서 후반부에는 다른 내용이 추가되고 있다.¹⁷⁾

이후 간행된 조선인 연활자본의 저본을 보면, 이해조의 『옥중화』는 완판 84장본 <열녀춘향수절가>와 신재효가 정리한 <남창춘향가>와 유사한 점이 많다고 한다.¹⁸⁾ 그리고 최남선의 『고본춘향전』은 『옥중화』의 통속성에 반발하여 ‘정통 춘향전’을 내세운 것으로 그 저본은 방각본이 아닌 세책본

17) 김신중·김용의·신해진, 『나카라이 도스이 역 계림정화 춘향전 연구』, 『일본어문학』, 9권 4호, 2003, 287~307면; 櫻井信榮, 앞의 논문, 217~223면; 정대성, 『‘춘향전’ 일본어 번안 텍스트(1882~1945)의 계통학적 연구』, 『일본학보』 43, 1999.

18) 이지영, 『‘옥중화’를 통해 본 20세기초 ‘춘향 형상’의 변화』, 39면.

계열, 그중에서도 항목동 세책본 ‘동양문고본’을 바탕으로 하였다(19) 여기까지 놓고 보면 초창기 일본인과 조선인의 근대적 출판물 <춘향전>의 저본은 각기 다른 계열의 작품을 바탕으로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1921년에 간행된 호소이 하지메의 통속조선문고본 『광한루기』를 보면, “처음 조경하(趙鏡夏)씨가 구어체로 역술한 것에 친구 도리아마(鳥山)씨가 한층 더 같고 닳아 구어체로 윤색하였다.”라고 하였다. 앞서 호소이는 다카하시의 <춘향전> 번역 작업을 숙지하고 그 내용을 축약하여 자신의 저서 『조선문화사론』(1911)에 수록하기도 하였다.²⁰⁾ 그러한 그가 10년 뒤 새롭게 『광한루기』를 번역·출간했다는 점에서 다카하시본과 다른 번역본을 내고자 한 의도를 짐작할 수 있다. 이때 초벌 번역을 맡은 조선인 조경하가 번역본의 저본을 정할 때 당시 조선인이 간행한 판본들도 참고하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 시기 가장 유행한 조선인의 <춘향전> 판본은 이해조의 『옥중화』 계열 간행본들이며,²¹⁾ 실제로 통속조선문고본에는 <완판84장본>과 『옥중화』의 흔적이 다수 보인다.²²⁾ 여기서 호소이본과 이해조의 『옥중화』와의 영향관계를 살필 수 있으며, 1920년대 간행된 일본어 번역본에는 조선인 연화자본, 특히 『옥중화』가 상당한 영향을 끼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²³⁾

이상에서 <춘향전>에 한정하여 양국 문단의 근대적 출판물 간행 상황을 보면, 우선 나카라이 도수이의 『계림정화 춘향전』(1882)과 다카하시 도호루의 『조선의 이야기집』(1910) 작업이 나오고, 이어 조선인 이해조의 『옥중화』(1912)와 최남선의 『고본 춘향전』(1913)이 신문에 연재되고 출판되었다.

19) 설성경, 『‘춘향전’의 형성과 계통』, 정음사, 1986, 140면.

20) 호소이 하지메, <춘향전>(『조선문화사론』, 1911) “<춘향전>·『재생연(숙향전)』 그리고 『장화홍련전』 3종은 이미 문학사 다카하시 도루씨에 의해 번역되었으며, 그의 저술 『조선의 이야기집(朝鮮の物語集)』에 실려 있다. 그 요지를 뽑고 불필요한 것을 삭제하였으며, 번역 또한 매우 유려하다. 생각건대, 일반 독자들은 이 책을 읽으면 충분히 원서의 내용을 알 수 있으니 이에 나는 오직 그 경계를 뽑아 적는데 그친다.”

21) 서유석, 앞의 논문, 136~141면; 차충환·김진영, 앞의 논문.

22) 김진선·김현주, 『조선문학결작집』 소재 ‘춘향전’ 연구, 『고전문학과 교육』 28, 2014, 197~208면.

23) 자유토구사 번역본 『광한루기』의 직접적인 저본이 『옥중화』라는 사실은 이상현의 『‘춘향전’의 번역과 민족성의 재현』(『개념과 소통』 16, 2015, 121~123면)에서 보다 자세히 논증되고 있다.

이후 1920년대 들어와 호소이 하지메의 『통속조선문고』 간행 작업 속에서 『광한루기』(1921)가 간행되었고 이 작품은 다시 『조선문학결작집』(1924)에 수록되었다. 한편, 조선인 쪽에서는 이광수의 『일설 춘향전』(1925~6)이 신문에 연재되었다. 이를 도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연도	조선인 간행 연월자본	일본인 번역·편찬본
1882		鷄林情話 春香傳 (桃水野史)
1910		朝鮮の物語集 (高橋亨)
1911		春香傳 (줄거리 소개) (細井肇)
1912	옥중화 (이해조)	
1913	고본 춘향전 (최남선)	
1921		廣寒樓記 (細井肇 編 / 島山某 譯)
1925~6	일설 춘향전 (이광수)	

3. 일본인 번역본 <춘향전>의 간행 의도와 변형 방식

근대라는 시공간을 거치면서 전통시대 통속물에 불과했던 <춘향전>을 비롯한 <심청전>·<홍부전>·<홍길동전> 등 일군의 고소설들은 통속물에서 조선문학의 ‘걸작’으로 재배치되었고, 이러한 시각은 지속적인 영향력을 발휘하여 이 작품들은 오늘날 한국의 대표적 고전문학 작품으로 자리잡을 수 있었다. 이들 작품들이 ‘고전’으로 자리매김하는데 기여한 20세기초 ‘조선인’들의 활동에 대해서는 그간의 연구를 통해 상당 부분 논의된 바 있다.²⁴⁾ 그런데 이들 작품을 『조선문학결작집』에 넣어 조선 문학의 대표작으로 만든 것은 이상에서 살핀 대로 일본인의 작업에서도 나타난 현상이며, 시기적으로는 오히려 조선인들의 활동보다 일찍 이루어졌다. 이에 일본인들이 <춘향전>을 근대의 출판물로 재탄생 시키는 과정 중에 ‘걸작’으로 이 름붙인 작업은 <춘향전>의 정전화(定典化) 과정을 이해하기 위해 보다 구

24) 이지영, 『일제 강점기 고소설의 ‘고전’ 형성 맥락』, 『고소설연구』 38, 2014; 강상순, 『고전소설의 근대적 재인식과 정전화 과정: 1920~30년대를 중심으로』, 『민족문화연구』 55, 2011; 이윤석, 『문학연구자들의 ‘춘향전’ 간행-1950년대까지』, 『열상고전연구』 30, 2009.

체적으로 살필 필요가 있다.

3.1. 조선의 풍토와 조선인의 심상 이해

일본인들이 가장 내세우는 <춘향전> 번역의 목적은 ‘조선을 이해하기 위한 방편’이라는 점이다. 다만, 이때 그 구체적인 내용은 작품별로 조금씩 차이를 보인다. 본고에서 주목한 세 작품, 1882년 나카라이 도스이의 번역본, 1910년 다카하시 토오루의 번역본 그리고 1921년 호소이 하지메 편찬본의 간행 의도는 다음과 같다.

■ 나카라이 도스이, 『계림정화 춘향전』(1882)

* 우리나라와 조선의 관계가 오래 되었다고 하지만 아직 그 풍토와 인정을 상세히 묘사하여 사람들에게 정보를 제공해 줄만한 것이 없음이 항상 유감이었다. 최근에 조선의 사랑 이야기를 다룬 소책자를 입수하였는데, 이를 통해 조선의 풍토와 인정을 대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고 오늘날 조선과의 통상무역을 원활하게 하는데 요긴하다고 생각되므로 번역하여 지면에 연재한다.

* 실로 부정을 저지르는 자는 마치 벼집에 붙은 불과 같아서 일단 거세게 타오르는 것 같아도 저 남원부사 박맹단처럼 순식간에 쇠잔하게 된다. 올바르게 살려다 고통당하는 사람은 진흙으로 더럽혀진 물과 같아서 이 기생 춘향처럼 시간이 지나면 원래대로 깨끗해진다. 세상 사람들이여! 부정을 일삼는 박맹단 같은 사람을 멀리하라. 세상 여자들이여! 이 책을 한번 읽고 수절의 존귀함을 알라.

나카라이가 『계림정화 춘향전』을 번역하여 오사카 아사히신문에 연재소설로 게재한 시기는 일본과 조선의 통상조약이 체결되어 일본인들에게 조선에 대한 정보가 한참 요구되던 때였다. 당시 아사히신문을 비롯한 일본의 민간 신문에서는 구독자를 늘리기 위해 소설과 같은 독자의 흥미를 끌 만한 기사를 연재하였다. 나카라이는 <춘향전>을 통해 조선의 풍토와 인정을 이해할 수 있으며, 그때의 풍토와 인정 중 하나로 춘향이의 수절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 이는 일본인들이 느낀 <춘향전>의 첫 인상을 잘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후 조선을 점령하려는 일본의 욕망이 구체화되면서 조선에서 간행된 최초의 일본어종합잡지 『한반도(韓半島)』(1903.1~1906.5)가 나와 일본인들

에게 조선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였다.²⁵⁾ 이 잡지에는 조선문예물을 번역하여 조선사회의 인정과 풍속을 전달하고자 한 코너가 있었다. 1904년 1월에 간행된 제1권 제2호의 『문예잡조(文藝雜俎)』, 『한국의 소설(韓國の小説)』, 란에 우에무라 고난(上村湖南) 번역으로 <춘향전>의 줄거리가 소개되었다.

우에무라는 <춘향전>을 소개하는 이유로 ‘다만 모 한국인 작품 중에 <춘향전>·『사씨남정기』·『구운몽』 같은 것은 소위 명작이라 할 만하며 <춘향전>은 인정연애(人情戀愛)를 그린 것’이라 평가하면서 ‘기자는 이 기회에 전술한 <춘향전> 및 기타 한 두 작품의 대략을 번역하여, 독자에게 한국소설 일반을 소개하고자 한다.’라고 하였다. 『한반도』의 한국문학 번역 작업은 상권 확보, 상업의 이익을 추구하는 조선 거주 일본의 민간 경제인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에 번역의 방법도 원문의 충실한 번역이 아닌 줄거리 소개에 그치는 등 문학적 접근 방식이 아니었다.

1910년 한일합방을 전후하여 다카하시 도루에 의해 <춘향전>은 다시 번역이 되고, 이는 다음해 1911년에 간행된 호소이 하지메의 『조선문화사론』에서 다시 그 개략이 소개된다.

■ 다카하시 도루, <춘향전>(『朝鮮の物語集』, 1910)

<춘향전>, 『재생』, 『장화홍련전』 등의 이야기는 언문으로 쓰였으며, 2·3권의 가격으로 도시나 시골 가는 곳마다 서림에서 판매되었다. 중류 이상의 부녀는 서로 모여 이것을 열독하여 그 주인공을 동정하고, 여덕(女德)을 닦는 방편의 하나로 삼는다. 생각건대, 그것이 주는 감화는 우리 막부시대에 바킹(馬琴)의 작품이 가정에 주는 영향과 같다. 이와 같은 이야기들은 이 나라 남녀 관계 및 상류부인의 도덕을 관찰하는데 좋은 자료가 된다.

다카하시는 <춘향전>이 중류 이상의 부녀들이 열독하면서 부덕(婦德)을 닦는 한 방편으로 상류부인의 도덕을 잘 보여주는 작품이라 평가한다. 그런데 이는 전통시대 조선에서의 <춘향전>에 대한 인식과 괴리되는 부분이 있다. 일단 조선시대 상류 계층의 여성들이 즐겨 읽은 소설은 <구운몽>이

25) 김효순, 앞의 논문, 109~116면.

나 <창선감의록>·<완월회맹연>·<명주보월빙> 등과 같은 우아한 문체를 자랑하는 중장편 한글소설이 주를 이루고 있다. 그런데 이 소설들은 보수적이고 체제 옹호적인 세계관을 보이고 있어 서민층의 의식을 반영하는 판소리계 소설 <춘향전>과 비교할 때 전혀 다른 성격의 작품들이다. 그러한 상황에서 다카하시가 <춘향전>을 상류부인의 도덕을 관찰하는 자료라고 판단했다면, 이는 <춘향전>에서 우선적으로 강조하는 주제인 춘향의 정절에만 주목한 것으로 <춘향전>에 대한 일면적인 이해라 할 수 있다. 즉, 당시 조선 사회에서 기생 신분의 춘향이 정절을 지키는 것이 어떤 의미를 지니는가 등의 문제를 복합적 관점에서 살피지 않고, 그저 <춘향전>의 표면적 주제에만 관심을 보이는 태도이다. 이는 앞서 나카라이 도스이가 <춘향전> 독서의 목적이 ‘수절의 존귀함’을 알기 위함이라 말하는 것과 상통하는 부분이다. 이렇게 ‘상류부인의 도덕소설’로서 <춘향전>을 이해하는 태도는 일본인들의 <춘향전> 번역 작업에 일정한 영향을 끼치는데 이에 대해서는 다음 절에서 다시 살피기로 한다.

그렇다면 1910년 한일합방 직후 다카하시와 호소이의 조선 이야기 문학에 대한 인식은 어떠했을까.

■ 다카하시 도루, 「자서(自序)」(『朝鮮の物語集』, 1910)

‘이야기(物語)’는 사회생활의 정수를 축소한 것으로 아주 오랜 옛날에 혹은 시대를 내려와 중세에, 또는 가까운 과거의 사람들 손에서 만들어져 사회의 흥미를 자극해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며 오랜 시간 전해왔다…… 사회관찰자는 있는 그대로의 생활 가운데 움직이지 않는 풍속 관습의 특색을 인식해야 한다. 하지만 풍속 관습을 연구하는 것만으로는 불충분하다. 더하여 그 풍속과 관습을 일관하는 정신을 살피고, 그 사회를 통제하는 이상으로 귀납하여야 비로소 사회연구가 잘 완결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 사회정신과 이상을 완전하게 발견하여 큰 그물을 제공한다면, 위정자와 사회정책자의 경영과 시설에도 큰 공헌을 할 것이다. 즉 민중의 마음의 근원을 짐작하고, 여기에 인간의 심성을 교육할 새로운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나는 이 나라에 손님으로 와서 몇 년 동안 머물며 이와 같은 목적을 가지고 조선의 이야기와 속담을 수집하여 이 책을 완성하였다.

■ 호소이 하지메, 『서설(敘說)』(『조선문화사론』, 1911)

대개 문학은 인정의 극치를 증류하여 얻은 수정과 같은 결정체이다. 그저 당시의 시대정신을 밝게 보여주는 것뿐만 아니라 때로는 고금을 종단하며 오랫동안 국민의 성정을 지배하고 감화하는 것임은 일부러 여기서 설명할 필요도 없다. 나는 조선을 이해하는 유일한 지름길을 조선 문학을 완미하는 것이라 보기에 본 저술을 쓰게 되었다.

다카하시와 호소이는 모두 문학에 대해 그 사회 구성원들의 성정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고, 조선과 조선 민중의 심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문학 작품을 수집하고 연구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후 1921년 호소이 하지메는 ‘자유토구사’를 설립하여 조선 고서의 번역 작업을 본격적으로 진행한다. 1921년 『통속조선문고』 제4집에 『광한루기』라는 제명으로 <춘향전>의 번역본을 실고, 1924년에는 『통속조선문고』와 『선만중서』에 수록된 작품 중 일부를 다시 뽑아 『조선문학결작집』을 간행하였는데 <춘향전>도 여기에 포함된다.

앞서 언급한대로 이 시기 호소이의 작업은 1919년 일어난 3·1운동의 충격에서 비롯한 것이었다. 그는 일본인의 조선 식민지 작업이 조선에 대한 물이해에서 비롯하였기에 오늘의 소요가 일어났다고 하며, 조선인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조선의 문학 작품을 살피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 호소이 하지메, 『광한루기의 권말(卷末)에』(『통속조선문고』, 1921)

* 조선의 소설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 인륜의 삼강이라 할 만한 효(孝)·열(烈)·우(友)가 골자로 쓰인 것으로 『심청전(孝)』·『춘향전(열)』·『제비다리(홍부전, 友)』가 있다. 그 중에서도 <춘향전>은 가장 널리 읽히고 있으니 일본의 ‘나니와부시(浪花節: 三味線 반주에 맞춰 의리나 인정을 노래한 것)’라 부를 만한 청극(聽劇)으로 갈채 받고 있다. <춘향전>에는 2, 3종의 별명이 있으며, 한문으로 쓰인 것은 『광한루기』라고 한다. 내용은 모두 같다.

■ 호소이 하지메, 『조선문학결작집』의 권두에 붙이다.』(『조선문학결작집』, 1924)

대정 8년(1919) 3월 1일 독립만세소요의 발발을 동경에서 들었을 때, 나는 내

일생의 사명이 분명히 제시되었음을 알았다. 소요 후 즉시 중국의 남북을 돌아 다니다 귀국하자마자 조선의 사태를 관찰하고는 조선에 시시각각 소리 없이 국가와 민족의 운명을 좀 먹고 있는 악질의 ‘암이 있음’을 뚜렷이 눈으로 보았다. 귀국 후 나는 한 가지 결의를 하고 조선에 건너 갔다. 내선(內鮮: 일본과 조선)의 진정한 결합은 무엇보다 내지인(內地人: 일본인)이 조선인을 이해하는데 있다. 장점도 결점도 속속들이 알고 그 뛰어난 점에 경의를 표함과 동시에 결점들을 동정하는 것이다. 상대의 뛰어난 점도 모르고 그저 그 결점만을 깔보고 미워하면서 말로만 ‘친선과 융화’를 추구해서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무릇 국가와 민족의 심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민족의 문화를 아는 것보다 빠른 길이 없다.

이렇게 이 시기 일본인의 조선 고소설 번역 작업은 조선 문학 그 자체에 대한 관심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 조선인을 이해하기 위한 방편의 하나였다. 곧 조선을 지배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다분히 정치적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진행된 것이다. 따라서 번역의 방식도 텍스트의 철저한 고증이나 원전의 정확한 이해보다는, 줄거리의 대강을 설명하면서 번역자가 주목하는 조선인의 심성을 부각시키는데 집중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조선의 고소설은 번역의 목적에 따라 변형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다.

가장 주목되는 모습은 첫 번째 예문에서 드러나듯이 <심청전>을 ‘효’, <춘향전>을 ‘열’, <홍부전>을 ‘우애’를 골자로 하고 있다면서, 작품의 가장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주제에만 집중하여 이해하려는 태도이다. 그러나 이는 조선의 고전 소설이 보여주는 주제의 일부만을 강조한 것으로 실제 <심청전>이나 <춘향전> 등 판소리계 소설이 지니고 있는 다층적이고 사회비판적 성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 이러한 태도는 이들이 조선의 문학 작품 번역을 통해 조선인들의 심상을 발견하고자 한 점에 기인한다. 다만, 이들이 발견한 심상이 과연 당시 조선인들의 실상을 그대로 반영한 것인가 묻는다면 의문이 남는다. 오히려 조선인에 대한 일본인의 기존의 선입관과 편견 또는 표면적으로 강조되던 도덕적 이데올로기를 부각시키는데 집중할 가능성이 더 클 수도 있다.

3.2. 통속성의 축소와 전통적 이데올로기 강조

① 통속성의 축소

일본인들의 <춘향전> 번역 작업에는 내용의 변형이나 삭제가 적지 않게 일어났다. 이는 일차적으로 조선과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일본인들이 쉽게 이해하기 위한 변형 작업이 있으며, 다음으로는 어떠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일부러 변형시킨 작업이 있다. 이 변형 중에 가장 두드러지는 것은 ‘노골적인 성적 묘사’가 제거된 모습이다.

<춘향전>의 대표적 판본인 84장 완판본 <열녀춘향수절가>에서 가장 주목받는 장면 중 하나를 꼽으라면 이몽룡과 춘향이의 첫날밤 장면을 거침 없이 묘사하고 있는 <사랑가> 대목을 들 수 있다. <완판84장본>에서 가장 농도 깊은 묘사를 보여주고 있으며 30장과 23장, 17장 등 분량이 적은 경판본(京版本)이라 해도 매우 공을 들여 묘사하는 대목이다. 그런데 일본어 번역본에는 이러한 성적 묘사가 두드러진 내용들이 거의 생략되고 단지 사건의 경과만을 간단히 기술한 채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 나카라이 도스이, 『계림정화 춘향전』

“이제 밤도 깊었으니 잠자리에 드시지요. 어서 일어나세요.” 하며 양손을 잡고 침실로 청했다. 하지만 이도령은 아무래도 이대로는 잠을 잘 수가 없었는지 “만약 지금 이대로 잠을 잔다면 그건 너무 무미하지 않느냐. 그러니 우리 둘이 글자를 맞추어 글자놀이하며 좀더 흥을 돋우자꾸나.” 하면서 붓과 벼루를 꺼냈다. (여기서 글자놀이라고 하는 것은 각자 자신이 생각하는 글자를 가지고 서로의 애정을 표현하는 것임) 그리고는 “우리 둘이 만났으니 만날 ‘봉(逢)” 이라고 쓰더니 다음에는 “서로 사이 좋게 지내자는 의미에서 친할 ‘친(親)”을 쓰고 “백년가약을 맺었으니 즐길 ‘락(樂)” 등등 수십 개의 글자를 모아 서로 사이 좋게 논 다음 이윽고 원앙금침을 함께 덮고 자리에 누었다. 하지만 어찌 금방 잠이 들 수 있겠는가. 너무도 황홀하여 제 정신이 아니었다. 두 사람은 하늘이 동전만해지고 땅이 개미만큼 작아지고 남대문이 바늘귀처럼 보일 때까지 흥을 돋우고 난 후에야 잠시 숙면을 취할 수 있었다.

■ 다카하시 도루, <춘향전>

이윽고 준비한 주안상을 내오니 산해진미가 자리에 가득하였다. 늙은 기생 월

매의 주선에 따라 몽룡은 춘향과 술잔을 나누니, 혼백이 산란하여 구름 속을 날아다니는 것 같았다. 밤이 더욱 깊어가자 잔치 자리를 물리고 침실로 들어가자 춘향이 말하였다. “공자께서는 첩과 백년을 기약하는 것이 어떠하신지요. 다른 여자에게 마음을 주지 않기로 약속해주신다면, 첩 또한 공자에게 허락할 수 있습니다. 첩은 진실로 한번 공자에게 몸을 맡기면 바다가 산이 된다 할지라도 다른 남자들이 털끝 하나 건드리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에 몽룡도 굳게 약속하였다. 그때부터 매일 밤 서로 통해 정을 나누니 아교와 옷칠로 불인 듯했다. 몽룡의 면학심(勉學心)은 더욱 풀어지고 서가에는 먼지가 쌓였다.

■ 호소이 하지매, 『광한루기』

이윽고 몽룡과 춘향 두 사람만 남았다. 아침의 광한루에서의 일부터 시작하여 세상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점점 밤이 깊어지고 잘 시간이 되었다. 마침 몽룡이 벗은 옷을 춘향이 상자에 넣어 정리하려던 중 옆으로 세워 놓은 가야금의 줄에 옷이 스쳐 스르릉 소리를 내었다. 몽룡이 그 소리를 듣고는 말하였다. “아, 좋은 소리다. 황학루의 피리 소리도 한산사 한 밤중의 종소리도 아마 이 소리에는 미치지 못할 것이다. 자 그럼 그대도 옷을 벗고...” 그러나 춘향은 그렇다고 해도 부끄러워서 쉽게 옷을 벗지 못하였다. 몽룡은 춘향은 가는 허리를 끌어 안고 옷을 벗겨 이불 안으로 끌어 들었다.

이몽룡과 춘향이의 첫날밤 장면은 <춘향전>에서 독자들이 가장 기대하고 열광하는 장면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실제 판소리 공연에 있어서도 이 대목을 구성지게 묘사하는 <사랑가>는 별도의 독립된 가창으로 공연되는 일이 빈번하다. 그런데 일본인들의 번역본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묘사가 심심할 정도로 간단히 끝나고 있다.

물론 이 부분은 <84장 완판본>에서 특히 두드러지듯이 언어유희와 전교 활용, 토속어 표현, 운율적 문장, 노골적인 성적 묘사 등으로 인해 외국어로 이를 실감나게 번역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대목이기도 하다. 그렇다고 하여도 이 장면의 핵심인 청춘남녀의 육체적 사랑을 집중적으로 그려내는 것은 충분히 가능함에도 일본어 번역본에서는 이 부분을 거의 삭제하고 있다.

‘첫날밤 장면’ 이외로도 조선본 <춘향전>에서는 춘향이를 성적 대상으로 보는 표현들이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반해, 일본어 번역본에는 이

부분에 대한 묘사가 모두 삭제되어 있다. 이를테면 춘향이 변사또에게 처음 끌려가 고초를 겪고 하옥되는 장면에서 남원땅의 한량들이 모여 들어 춘향이의 몸을 여기저기 만지는 장면이나, 옥에 갇힌 춘향이 거울이 깨지는 꿈을 꾸고 점쟁이를 불러 해몽을 받는 과정에서 점쟁이가 점을 본다는 핑계로 춘향이의 은밀한 부위를 더듬는 장면 등이 일본어 번역본에서는 모두 축소되거나 생략되고 있다. 이는 뒤에 나온 번역본일수록 더욱 두드러진다.

■ 나카라이 도스이, 『계림정화 춘향전』

그때 마침 건너 마을의 허봉사라고 하는 맹인 안마사가 지나가는 것을 보고 춘향이 옥졸에게 “저기 지나가는 점쟁이를 불러주세요.”하고 부탁하였다. 옥졸은 바로 달려나가 점쟁이를 데리고 왔다. 허봉사는 춘향 앞에 앉아 춘향의 손끝부터 발끝까지 계속 쓰다듬으며 “이리도 연약한 너를 도대체 누가 이렇게 무자비하게 매질했던 말이나? 이 고운 피부에 대고 누가 주장(朱杖), 곤장, 도리깨질을 했는지 울화통이 터지는구나. 비정한 김집장이나? 무심한 이집장이나? 내게 자세히 말해 보아라. 그 놈들이 길일을 물으러 오면 대흉일을 알려주어 대신 복수 해주마. 아아, 가엾고 애처롭구나.” 하고 입에서 나오는 대로 경박하게 아첨하였다. 게다가 어깨에서 허리로 몸을 더듬어 내려가는 손길이 차츰 이상하게 변해 가자 춘향은 당황하여 벌떡 일어났다. 춘향은 허봉사의 지나친 행동에 화가 나고 수치스럽기도 했지만 우선은 꿈의 길흉을 알아보아야 하겠기에 적당히 속아 넘어가는 척하기로 작정하고 가슴을 진정시킨 후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 다카하시 도루, <춘향전>

어느날 밤 춘향은 거울이 땅에 떨어져 깨지는 꿈을 꾸고는 마음에 걸려 점쟁이에게 물어보았다. 점쟁이는 “거울이 떨어져서 깨지면 무슨 소리가 나는가? 말지 않아 반드시 좋은 소식이 있을 것이라.”라고 춘향에게 가르쳐주었다.

■ 호소이 하지메, 『광한루기』

* 점쟁이 해몽 장면 없음.

이상에서 살핀 바, 이 시기 일본인들의 <춘향전> 번역 작업은 조선본 중에서 춘향이를 성적인 대상으로 보고 이를 묘사하는, <춘향전> 중 가장 대중의

인기를 끄는 대목을 제거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앞서 살핀 일본인들의 <춘향전>에 대한 인식들이 “세상 여자들이여! 이 책을 한번 읽고 수절의 존귀함을 알라.(『계림정화 춘향전』)”라든지 “중류 이상의 부녀는 서로 모여 이것을 열독하여 그 주인공을 동정하고, 이것을 통해 여덕(女德)을 닦는 한 방편으로 삼는다.(다카하시본 <춘향전>)” 또는 “조선의 소설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 인륜의 삼강이라 할 만한 효·열·우(友)를 골자로 쓰인 것은 『심청전(효)』·『춘향전(열)』·『제비다리(홍부전, 友)』가 있다.(호소이본 『광한루기』)”라는 등 부덕(婦德)을 닦기 위한 교과서이자 ‘열(烈)과 ‘효’의 가치를 담고 있는 ‘교훈소설’로 바라보는 점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다.

② 전통적 이데올로기 강조

그렇다면 일본인들이 <춘향전>에서 가장 부각시키는 요소는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춘향이의 이몽룡에 대한 ‘정절’이다. <춘향전>의 가장 중요한 주제가 기생 춘향의 이몽룡에 대한 정절임은 새삼스러운 이야기도 아니다. 그런데 조선시대에 흥행했던 <춘향전>이 과연 춘향의 정절을 가장 중요한 주제로 삼고 그에 대한 묘사가 작품의 중심 내용이냐고 묻는다면 반드시 그렇다고는 할 수 없다. 선행 연구에서도 지적된 바, 춘향이의 정절을 가장 잘 보여주는 장면 중 하나인 변사또에 대한 항거 부분이 실제 조선시대 이본들에서는 그 분량이 크지 않으며, 변사또 관련하여 오히려 더 장황하게 묘사되는 부분은 신임사또 행차와 기생점고 타령과 같은 떠들썩하고 화려한 장면들이다.²⁶⁾

일본어 번역본에서 유독 강조되는 장면을 보면, 옥에 갇힌 춘향이가 자신의 정절을 이몽룡이 모르면 어떡하나 걱정하는 부분이다. 또한 자신이 당장 죽게 될 처지임에도 모친 월매를 걱정하면서 이몽룡이나 향단이에게 추후 월매를 보살펴 줄 것을 단단히 부탁하는 장면이 있다.

■ 나카라이 도스이, 『계림정화 춘향전』

* 춘향은 전관 사또의 자제 이도령과 백년가약을 맺고 나서, 헤어진 이후에

26) 이지영, 『춘향전의 가치에 대한 비판적 검토』, 『고전문학연구』 44, 2013, 282~4면.

기적(妓籍)을 떠나 굳은 절개를 지키려다 2년이 넘도록 옥에 갇혀 있었다. 또한 상랑궁에 들어간 사람이나 깊은 산 속에 갇혀 있는 사람보다 더욱 커다란 간난(艱難辛苦)을 겪어야만 했다. 하지만 고통이 더하면 할수록 이도령을 향한 마음과 절개는 점점 굳어져 매를 맞는 고통쯤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었다. “서방님과 의 하룻밤 사랑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내 목숨 따위는 전혀 아깝지 않다. 그리고 끝까지 정조를 지키다 죽겠다는 각오는 전부터 하고 있었다. 하지만 옥 가락지가 진흙 속에 묻혀 천년 만년 세월이 흘러도 그 색이 변치 않는다고 했듯이, 헤어질 때의 맹세를 내가 이렇게 지키고 있다는 사실을 단 한 번도 알리지 못했을 뿐더러 알릴 방법도 없다는 것이 원통할 따름이다.”...(중략)... “소첩은 이렇게 서방님을 다시 만나 모든 것을 말씀드릴 수 있기에 이제 더 이상 어떤 시련을 겪더라도 결코 억울할 것은 없습니다.”

* “이제부터 잠시 소첩의 집에 머무신다면 어머니께도 매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옥에 갇혀 있는 이상 내일 죽어도 관계가 없습니다만 어머니만은 걱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소첩의 소원대로 저희 집에 머물러 주신다면 어머니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만약 소첩을 불쌍히 여기신다면 부디 청을 들어주십시오.” 하며 끝까지 고결함을 잃지 않았다.

■ 호소이 하지메, 「광한루기」

“들으니 내일은 신임사또의 생일이라 큰 잔치를 베푼다고 합니다. 그리고 연회를 마치면 나를 끌어내어 태형(笞刑)을 가한 후 죽인다고 합니다. 제가 죽거든 부디 시체만이라도 다른 사람 손에 넘기지 말고 당신께서 직접 가져가 묻어 주십시오. 묘 앞에는 ‘수절원사춘향지묘(守節冤死春香之墓)’라고 쓴 묘비를 세워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 더 부탁드립니다. 부디 우리 늙은 어머니를 제 대신 언제까지나 돌봐 주십시오. 또한 내일 아침 일찍 감옥 앞에서 제가 관아로 들어가는 것을 기다려 마지막으로 얼굴 한번 보여주십시오.”

이 장면들에서는 춘향의 ‘열녀’에 대한 강한 자의식과 함께 자신이 정절을 지키고 있음을 이몽룡에게 알려야 함을 강조하는 모습이 두드러진다. 일본어 번역본의 춘향은 정절을 지키는 스스로를 강조하며 ‘열녀가 되는 것’ 그 자체에 가치를 두는 모습이 특징적이다.

또한 조선 판본에서는 잘 드러나지 않는데 일본 판본에서 유독 강조되는

모습 중 자신이 죽은 이후 어머니 월매의 처지를 걱정하는 부분이 있다. 춘향이는 죽음에 예정된 전날 밤에 이몽룡을 만나 두 가지를 말하는데, 하나는 ‘서방님을 만나 본인의 정절을 증명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자신이 죽은 후 어머니를 돌봐달라는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본인의 죽음은 전혀 개의치 않고 오로지 ‘남편에 대한 정절’과 ‘부모에 대한 효’를 강조하는 모습은 ‘고결함을 잃지 않았다’고 칭송되고 있다.

그러나 ‘열’과 ‘효’라는 주제는 <춘향전>의 중심 주제 중 하나이기는 하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다. 오히려 당시 조선의 민중들이 <춘향전>을 애호하고 즐긴 요인에는 신분제에 대항하는 사회 비판적 정신, 청춘남녀 춘향이와 이몽룡의 순수한 사랑, 노골적인 성애 묘사, 성적인 대상으로 본 춘향에 대한 인식 등이 더욱 중요한 요소라고도 할 수 있다. 실제로 조선본 <춘향전>에 대한 기왕의 연구에서는 춘향이가 이몽룡에 대한 정절을 주장하는 이면에 ‘열녀’라는 통과의례를 통해 기생을 넘어서 이몽룡의 부인, 즉 정경부인이 되어 신분상승을 이루고자 하는 욕망이 있음이 누차 지적되기도 하였다. 여기서 ‘열녀’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닌 하나의 도구적 성격을 지니게 된다. 그리고 이렇게 타고난 신분의 한계를 뛰어 넘어 주체적으로 살아가는 춘향의 모습은 <춘향전>의 근대적 성격을 규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로 평가받는다.²⁷⁾

이렇게 볼 때 일본인 번역본 <춘향전>에서 춘향이의 ‘정절’과 ‘효성’에 대해 지나치게 강조하는 모습은 한편으로 전근대적 가치관에 <춘향전>을 박제시키는 것으로 <춘향전>의 근대적이고 진보적인 성격을 약화시키는 작업으로 볼 여지가 있다. 일본인들은 조선의 고소설을 통해 조선인의 심상을 발견하고자 하였고, 이때 <춘향전>은 그저 남편에 대한 정절과 어머니에 대한 효성이라는 도덕적 관념의 구현을 보여주는 작품일 뿐이었다. 이들에게 <춘향전>이 지니는 여타의 미덕들은 관심 밖이었고, 그러한 만큼 이들의 <춘향전> 이해는 다분히 편파적이고 일면적 성격에 그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27) 이지영, 『춘향전의 가치에 대한 비판적 검토』, 275~7면에 <춘향전>의 근대적 가치를 강조하는 선행연구가 잘 정리되어 있다.

4. 일본인 <춘향전> 번역 작업의 문학사적 의미

20세기초 간행된 <춘향전> 일본어 번역본의 주요한 독자층을 살펴보면, 조선에 거주하는 일본인들이 대부분인데, 이때 기관이나 회사 등과 같은 후원 단체의 대량 구입도 적지 않았다. 이 책들은 후원인의 지원으로 간행되는 것이기에 곧 이들의 관심을 잃게 되면서 출판사는 심각한 경영난에 처하게 되었다. 처음부터 일본인의 조선 고전문학 번역 작업은 문학 그 자체의 감동에 관심을 갖고 시작한 것이 아닌, 통상 무역과 식민지 경영을 위한 자료 수집이라는 문학 외적인 의도를 가지고 간행되었다. 이에 대중의 인기로 살아가는 ‘대중소설’로서의 측면이 현저히 약화되었고, 곧 독자들의 관심과 흥미를 잃게 된 것이다.

■ 호소이 하지메, 『조선문학결작집』의 권두에 붙이다. (『조선문학결작집』, 1924)

그런데 당시 조선의 문제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냉담하기 짝이 없으니, 처음 『통속조선문고』를 출판할 때를 보면, 겨우 200명의 회원을 모으는데 그쳤다. 경영의 곤란은 한 가지가 아니었다. 번역에 골머리를 앓으면서 종이와 인쇄 비용을 조달하는데 머리를 쥐어뜯을 정도였다. 도중에 간행 사업을 그만두고자 절망의 긴 한숨을 쉬는 일이 한 두 번이 아니었다. 다행히 선배 有賀光豊씨와 美濃部俊吉씨의 후원을 얻어 온갖 어려움을 극복하고 문고 12권의 간행을 끝냈다. 계속해서 『총서』 11권(최종 간행 12권은 동경대지진 당시에 원고를 소실하여 11권으로 끝냈다)을 간행하였다. 문고와 총서 23권에 수록한 서목은 40종이다. 그 진 후 4년 동안 회원수는 최대로 보았을 때조차 600명을 넘는 일이 없었다. 나는 일본인(內地人)은 물론 조선에 거주하는 일본인이 이렇게 조선 문제에 관심이 없는 일에 대해 놀라고 분하기 보다는 오히려 반성해야 한다고 본다. 조선에 사는 일본인 관리만으로도 5만명을 헤아린다. 그들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관직에 있는 것일까.

결론적으로 19세기 후반에서 20세기초에 이루어진 일본인의 조선고전 번역 작업은 통속물로 전승되던 조선 고전 문예물을 ‘결작’의 이름으로 포장하고 있지만 그것이 작품의 문학성에 대한 관심 속에서 문인과 일반인들의 지지를 얻어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작품 외적인 목적을 바탕으로 의도

적 변형이 이루어진 반쪽짜리 결과물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시기 일본인들의 손에서 이루어진 조선 전통문학 작품의 ‘결작’ 만들기 작업은 1920년대 이후 본격적으로 일어난 조선인들의 전통문학 작품의 ‘고전’ 만들기 작업과 무관하다 할 수 없어 그 점점에 대한 고찰이 요구된다.

전통시대 통속물로 존재하던 고소설은 해방 이후 대표적인 고전 작품으로 교과서에 수록되면서 ‘정전화’되는데, 이러한 고소설의 가치는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형성’된 것이라 한다. 즉 1910년대 신문연재와 활자본 출판 등을 통해 고소설은 통속물로 자리를 잡고, 1920년대에 민족주의와 결부되면서 ‘국민문학’으로 재평가되며 긍정적 시각을 확보하고, 1930년대 학계의 연구를 바탕으로 ‘고전’과 ‘전통’으로 재인식된 것이다.²⁸⁾ 다만, 이때의 논의는 일제강점기 ‘조선인’의 연구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그런데 이제까지 살핀 바, <춘향전>을 비롯한 일군의 고소설이 조선문학의 ‘대표작’으로 선발되고, 드디어 ‘결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되기에 이른 것은 조선인들의 작업에 앞서 20세기초 일본인들의 작업에서 그 일단을 보이고 있다. 이에 20세기초 <춘향전>의 근대화 작업은 조선인의 작업만이 아닌 일본인의 작업과 함께 논의될 때 그 의미가 더욱 명확해질 것이다.

이 시기에 왜 조선인들의 한국고소설 간행 작업이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그때 선정된 작품들은 어떤 기준으로 선발되었는지를 살피기 위해서는 본고에서 주목한 두 번째 번역본의 번역자 다카하시 도루를 비롯한 경성제대 일본인 교수들의 ‘조선연구’ 작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다카하시는 경성제대 법문학부가 설립된 1926년부터 1940년까지 조선어문학부 교수를 역임하며 조선문학사와 조선사상사 강의를 담당한 이 시기 대표적인 일본인 조선문학 연구자이다. 따라서 이때의 경성제대 출신 조선인 학자들의 문학 연구에 다카하시의 영향력이 어떤 방식으로든 존재하였으리라 보는 것이 타당하다.

<춘향전>과 관련하여 주목할 대목은 1930년대 조선고소설의 대표적인 조선인 연구자 중 한 사람인 김태준이 바로 1928~31년까지 경성제대 본과

28) 이지영, 「일제 강점기 고소설의 ‘고전’ 형성 맥락」, 『고소설연구』 38, 2014; 강상순, 「고전소설의 근대적 재인식과 정전화 과정: 1920~30년대를 중심으로」, 『민족문화연구』 55, 2011.

생으로 재학하였다는 사실이다. 물론 김태준은 중국문학 전공으로 다카하시와 직접적인 사승 관계에 있지 않으며, 그의 『조선소설사』와 『조선한문학사』 저술은 ‘내가 대학졸업반 때 일본인들이 우리 소설사와 한문학사 등을 쓰려고 해 내가 먼저 내야겠다는 마음에서 서두르느라 그런 것’이라는 증언이 있는 것처럼 한편으로 일본학자의 연구에 대한 반발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여지가 있다.²⁹⁾

여기에 마찬가지로 당시 경성제대 예과 학생이었던 김종무(金鍾武)의 <춘향전>에 대한 독후감 <아관춘향전(我觀春香傳)>을 살펴보면 일본인의 조선 고소설 번역과 연구에 대한 경성제대 조선인 학생의 반발이 더욱 명확하게 드러난다. 이 자료는 경성제대 예과학우회에서 간행한 문학잡지인 『청량(淸涼)』 6호(1928.12)에 수록된 것으로 당시 식민지하 조선에서 일본어로 쓴 것이다.³⁰⁾ 『청량』은 경성제대 개교 1주년을 기념하여 1925년 5월 18일에 발간된 이후 30호(1941년 간행)를 끝으로 중단하기까지, 17년 동안 거의 1년에 2번씩 정기적으로 발행된 경성제대 예과의 간판 문예잡지였다.

■ 김종무, 『아관춘향전(我觀春香傳)』(『청량(淸涼)』 6호, 1928.12.)

* 이상의 (춘향전의) 즐거리를 요약하는데 타다(多田) 선생이 빌려 준 『조선문학결작집』을 참고하고자 했다. 그런데 이 책은 ‘춘향전’이라는 근사한 표제를 달고 있기는 하지만, 그 내용이나 번역과 번안이 명성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어떻게 해도 참고할 수 없었다. 나는 이와 같은 되먹지 못한 번역이 세상에 돌아다니는 일로 인해 조선문학에 대해 잘못된 인상을 주지는 않을까 염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원문은 일본어)

이때 ‘타다(多田) 선생은 당시 경성제대 예과 교수였던 ‘타다 마사토모(多田正知)’이며 그가 빌려준 『조선문학결작집』은 바로 앞서 살핀 호소이 하지메(細井肇)가 1924년에 간행한 조선 고소설과 고전 작품을 모아 엮은 책이다. 여기에는 본고에서 주목한 세 번째 번역본인 호소이 하지메 편찬 『

29) 홍석표, 『김태준의 학문연구-일인학자 및 투신과의 학문적 교섭』, 『중국현대문학』 63, 2012, 119~122면.

30) 이 자료는 충북대 국문과 이지영 교수에게 소개·제공받은 자료이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 말씀을 올린다.

광한루기』(1921)가 실려 있다.

위의 기록은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려주는데, 먼저 당시 연구자들에게 일본인이 번역한 <춘향전>이 상당히 유포되었고 연구의 기본적인 텍스트 중 하나로 인식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조선후기 일개 패관소설 작품에 불과한 <춘향전>이 ‘조선문학의 걸작’으로 포장되어 유통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그러한 시대적 상황과 별개로 조선인 학생의 눈으로 볼 때 호소이 하지메의 번역본은 되먹지 못한 번역이자 변안으로, 이 번역본 때문에 오히려 조선문학에 대한 잘못된 인상이 유포될까 걱정할만한 것이기도 하였다. 이렇게 당시 경성제대 조선인 학생의 눈으로 볼 때 일본인들의 <춘향전> 번역과 연구는 오히려 조선 고소설의 실상을 왜곡하는 행위로 인식되고 있었으며, 이에 이들은 자신들의 관점에서 새롭게 조선 고소설을 연구해야 할 필요성을 절감하게 된다.

이상에서 살핀 바, 1930년대 활발하게 이루어진 조선인 연구자들의 조선 고소설에 대한 근대적 연구의 배경에는 20세기초 일본인들의 번역과 연구가 하나의 계기가 되고 있다. 그러므로 일본인 작업의 영향 또는 반발 작용으로 이루어진 1930년대 조선인의 <춘향전>에 대한 학문적 연구를 살피는 데는 이 시기 일본인 학자들의 연구가 함께 논의되어야 그 온전한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5. 마무리

이상에서 19세기말 이후 20세기초 일본인들의 <춘향전> 번역 작업을 고찰함으로써 근대화와 식민지화가 동시에 진행되던 조선문단 상황에서 조선 고소설이 근대적 출판물로 재탄생하는 과정의 일면을 추적하였다. 조선의 고전문학 작품들은 20세기초 근대적 출판물로 새롭게 탄생하면서 ‘정전’과 ‘고전’으로서의 위상을 갖추는데 이때 일본인 번역본은 일정한 역할을 담당한다. 결국 20세기초 일본인과 조선인 양쪽에서 이루어진 <춘향전>의 근대화 작업에 대해서는 서로 간의 영향을 주고받은 지점과 일본에 의해 왜곡된 부분에 반발하는 조선인의 작업이 섬세하게 포착할 때만이 그 총체적 의미

를 밝힐 수 있을 것이다. 경성제대 일본인 교수진과 조선인 학생의 <춘향전>을 비롯한 조선 고소설의 이해가 서로 연결되고 충돌되는 지점에 대해서는 지면을 달리하여 후속 연구를 통해 보다 엄밀하게 논의하기로 한다.

참고문헌

1. 원전 자료

- 조선시대 「춘향전」 이본 자료들(필사본, 방각본)
나카라이 도스이(半井桃水), 『鷄林情話 春香傳』, 『大阪朝日新聞』, 1882.
다카하시 도루(高橋亨) 著, 『朝鮮の物語集(附俚諺)』, 京城: 日韓書房, 1910.
호소이 하지메(細井肇) 著, 『朝鮮文化史論』, 京城: 朝鮮硏究會, 日韓書房, 1911.
호소이 하지메 편, 『광한루기』, 『通俗朝鮮文庫』, 京城: 自由討究社, 1921.
호소이 하지메 편, 『通俗朝鮮文庫』, 京城: 自由討究社, 1921.
호소이 하지메 편: 『鮮滿叢書』, 京城: 自由討究社, 1922~3.
호소이 하지메 편, 『朝鮮文學傑作集』, 東京: 奉公會, 1924.
김종무, 『아관춘향전(我觀春香傳)』, 『청량(淸涼)』 6호, 1928.12.
이해조, 『옥중화』, 보급서관, 1912.
최창선(최남선), 『고본춘향전』, 신문관, 1913.

2. 연구논저

- 강상순, 『고전소설의 근대적 재인식과 정전화 과정: 1920~30년대를 중심으로』, 『민족문화연구』 55, 2011, 47~92면.
권혁래, 『근대 초기 설화·고전소설집 ‘조선물어집’의 성격과 문학사적 의의』, 『한국언어문학』 64, 2008, 217~246면.
김신중·김용의·신해진, 『나카라이 도스이 역 계림정화 춘향전 연구』, 『일본어문학』, 9권 4호, 2003, 287~307면.
김진선·김현주, 『‘조선문학결작집’ 소재 ‘춘향전’ 연구』, 『고전문학과 교육』 28, 2014, 191~219면.
김효순, 『한반도 간행 일본어잡지에 나타난 조선문예물 번역에 관한 연구』, 『일본연구』 33, 2012, 99~119면.
西岡健治, 『일본에 있어서의 한국문학의 전래양상-江戶시대부터 1945년까지』, 『국학연구론총』 1, 2008, 1~25면.
서신혜, 『일제시대 일본인의 고서간행과 호소이 하지메의 활동』, 『은지논총』 16, 2007, 389~416면.
서유석, 『20세기 초반 활자본 춘향전의 변모 양상과 그 의미-‘옥중화’ 계통본을 중심으로』, 『관소리연구』 24, 2007, 133~170면.
설성경, 『‘춘향전’의 형성과 계통』, 정음사, 1986.

- 송미경, 『여규형본 ‘춘향전’ 각본의 형성과 독서물로의 수용 전환』, 『판소리연구』 28, 2009, 263~288면.
- 櫻井信榮, 『半井桃水‘鷄林情話春香傳’について』, 『일본학』 31, 2010, 209~228면.
- 이상현, 『‘춘향전’의 번역과 민족성의 재현』, 『개념과 소통』 16, 2015, 99~162면.
- 이옥성·강순애, 『‘춘향전’ 간행본의 계통 및 서지적 특징에 관한 연구』, 『서지학연구』 52, 2012, 379~428면.
- 이윤석, 『문학연구자들의 ‘춘향전’ 간행-1950년대까지』, 『열상고전연구』 30, 2009, 133~161면.
- 이용수·윤석임·박태규, 『일본에서의 ‘춘향전’ 수용 연구』, 『일본언어문화』 19, 2011, 551~572면.
- 이용수·윤석임·박태규, 『일본에서의 ‘춘향전’ 수용의 전개양상-제1기(1882~1924)를 중심으로』, 『일본언어문화』 22, 2012, 651~672면.
- 이지영, 『‘옥중화’를 통해 본 20세기초 ‘춘향 형상’의 변화』,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32, 2016, 37~63면.
- 이지영, 『일제 강점기 고소설의 ‘고전’ 형성 맥락』, 『고소설연구』 38, 2014, 37~66면.
- 이지영, 『춘향전의 가치에 대한 비판적 검토』, 『고전문학연구』 44, 2013, 271~298면.
- 정대성, 『‘춘향전’ 일본어 번안 텍스트(1882~1945)의 계통학적 연구』, 『일본학보』 43, 1999, 197~217면.
- 정병호, 『1910년 전후 한반도 ‘일본어 문학’과 조선 문예물의 번역』, 『일본근대학연구』 34, 2011, 137~154면.
- 차충환·김진영, 『구할자본 춘향전의 출판과 서지』, 『판소리연구』 33, 2012, 339~383면.
- 최혜주, 『일제강점기 고전의 형성에 대한 일고찰』, 『한국문화』 64, 서울대 규장각한국학연구원, 2013, 157~195면.
- 홍석표, 『김태준의 학문연구-일인학자 및 루신과의 학문적 교섭』, 『중국현대문학』 63, 2012, 119~148면.

Translation of Choonhyang-Jeon
by Japanese Writers in Early 20th Century

Rho, Kyung-Hee

In this study, I trace back the early stage of recreating classical Chosun novels into modern publication, through investigating the translation of Choonhyang-Jeon (春香傳) by Japanese writers in early 20th century. Of particular interest are the works by Nakarai Tosui(半井桃水) in 1882, by Takahashi Toru(高橋亭) in 1910, and by Hosoi Hajime(細井肇) in 1921, the last one being titled as Kwanghanru-Ki (廣寒樓記). These translated editions were created in the political background of Japan's economic invasion, annexation of Korea, and 3.1 Independence Movement. They were recreated for the purpose of understanding the culture and spirit of Chosun and transformed accordingly. The erotic elements of the original version were abbreviated and the traditional values such as the fidelity and filial piety were stressed. As a result, the social criticism and the entertaining aspects of the original version were diminished, reflecting the contrasting view of the Japanese from that of Chosun. Since 1920's, Choonhyang-Jeon was recognized as a classic by Chosun writers and this appears to reflect those Japanese translations in part. It remains to be uncovered how Choonhyang-Jeon developed and got recognized by Chosun and Japanese writers in contrasting manner through the time-space of modern era.

keywords: Choonhyang-Jeon, Translation by Japanese writers, Nakarai Tosui, Takahashi Toru, Hosoi Hajime.

접수일자: 2016. 9. 30.
심사기간: 2016. 10. 1.~2016. 11. 10.
게재결정: 2016. 11. 10.